판결·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퇴사했더니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요? 회사의 요구를 모두 막았습니다.

가처분·간접강제 신청 전부 기각

전부 방어

퇴사자 상대 가처분 방어 ·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법무법인 해율

주 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퇴사자에게 컴포넌트 비밀번호 제공과 파일·레지스트리 해제, 간접강제를 요구한 회사의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퇴사 뒤에도 회사가 자료나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면, 어떤 의무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 관계의 다툼은 정산과 운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요구와 법원이 정한 의무를 구분해 다음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해결의 핵심

자료의 소유권과 특정 행동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요건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주장한 내용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사했더니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요

가처분·간접강제 신청 전부 기각.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퇴사자가 회사와 자료 제공 의무를 다툰다면
- 회사에서 비밀번호 제공을 법원에 요구했다면
- 자료의 소유 문제와 강제 제공 여부가 다르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해율이 함께한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회사의 가처분 요구에 대응한 퇴사자를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가처분·간접강제 신청 전부 기각입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실제 판단을 함께 살펴보면,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을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달라진 점

회사의 비밀번호 제공과 파일 해제 등의 신청을 막은 결과입니다. 모든 자료의 소유권이 퇴사자에게 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번 신청에서 강제로 요구한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성과입니다.
이번 판단이 정한 의무와 실제 이행은 구분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준비할 자료와 절차를 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가처분·간접강제 신청 전부 기각.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회사 요구를 안 따르면 제재금을 내라 한다면
- 퇴사 뒤 프로그램 해제 의무가 있는지 다퉈야 한다면
- 퇴직 후 회사의 강제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